

## 주택 구입 주 연령층은 '베이비부머'



▲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유자금이 풍부해 주택 매입력이 높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올해 주택을 재매수한 이들의 중간 나이는 58세로,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0년생)가 주로 주택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가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전날 발표한 자료에서 올해 주택 재매수자이전에도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는 매수자의 중위 연령이 58세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59세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1981년의 36세보다는 크게 높아진 것이다.

NAR은 또 올해 첫 주택 매수자의 비율은 32%로, 1981년 이후 평균 38%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1980년대 초에는 최초 매수자 주된 연령이 20대 후반이었으나 요즘은 30대 중반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22년 만의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도 급등해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매수 세력이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고, 이전에 집을 팔아 보유자금이 풍부한 이들이다.

NA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시카 라우츠는 "여러 사람이 한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경우 전액 현금 구매자나 보유자금이 많은 사람에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그 매수자는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매수자 평균소득은 지난해 8만8천달러에서 올해 10만7천달러로 22%나 올라갔다. 미국 가정 중위소득이 약 7만5천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미국 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 반발 커지는 '팁 문화... "팁 금액 제시는 불쾌"

최근 미국에서 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8월 7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1만1945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는 5년 전보다 팁을 요구하는 곳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식당이나 가게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해진 금액을 팁으로 먼저 요구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40%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업장이 크게 늘면서 기존에는 팁을 받지 않던 매장에서도 키오스크 화면에서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팁을 요구하는 곳들이 늘었다. 가령 물건이나 음식값



▲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의 15%, 20%, 30% 등 팁 비율을 명시한 버튼을 '팁 없음', '직접 입력' 등의 버튼과 함께 화면에 띄워 고객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CBS방송은 "역사적으로 팁은 좋은 서비스를 보상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보통 식당이나 미용실, 택시 등 '감사 표현'이 직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에서만 요구됐다."라며 "그런데 디지털 결제 기

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소액 결제 건에 대해서도 팁을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식당에서 외식하는 경우 적절한 팁 수준을 두고도 반응이 같았다. 기존에 정석이라고 여겨지던 15%라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37%였고, 15% 이하라고 답한 이들은 20%였다.

## 미국 남녀 기대수명 격차 확대

미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가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감염과 약물 과다 복용, 정신 건강 악화로 인한 남성 사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13일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연구팀은 2021년 미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73.5세로 여성 기대수명 79.3세와 비교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2010년 기대수명은 남성이 76.3세, 여성은 78.1세였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코로나19 대 사태로 더 심화됐다. 2021년까지 미국에선 남성 10만명당 131명, 여성은 82명이 사망해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

뉴욕타임스는 "남성이 코로나에 더 약했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증, 면역반응 등 생물학적 원



▲ 미국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가 심화됐다. 사진=shutterstock

인과 직업, 백신 접종 여부 등 후천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9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남성이 증가(10만명당 22.4→22.8명)한 것도 기대수명에 악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여성은 자살 사망이 10만명당 6명에서 5.7명으로 줄었다. 이외에 약물 과다 복용, 정신 건강 악화도 남성 사망자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린스턴대 앵거스 디턴 교수는 음주, 마약 복용, 자살 등이 증가해 미국 백인 남성의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연구팀은 "전반적으로 미국 남성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 타운뉴스 업소록

# "리스팅 신청하세요!"

###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국):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속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